

지역사회의 폭력남편과 가정폭력범죄 행위자들의 특성 비교

장 회 숙

(성공회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사회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사회 폭력남편들과 사법부의 처벌을 받은 아내폭력 가해남성들의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다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52명 비폭력 남성들과 사법체계의 사회기관과 접촉이 없는 82명 폭력남편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받은 336명 행위자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해서 비교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폭력 또는 지역사회 폭력집단을 예측하는 요인들은 자녀폭력, 부부평등결정권, 소득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처벌을 받은 행위자들은 아내폭력을 허용하는 태도, 학력, 자녀폭력, 질투심에서 비폭력 남편들과 구별되고 있었다. 사법체계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은 노출된 집단보다 학력이 높고, 결혼기간이 길며, 스트레스 수준이 월등하게 높았다. 반면 가정폭력범죄 행위자들은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에 비해 알코올 문제와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총 333명을 대상으로 MCMI-III 척도에서 제시하는 성격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수동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법체계 행위자들보다 자기애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체계 폭력집단에서는 상대집단들과 비교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만이 고유한 특성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아내폭력, 가정폭력, 행위자, 폭력남편의 유형과 특성,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1. 서론

아내폭력을 설명하거나 그에 대한 개입방법을 찾는 노력은 폭력남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촉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비폭력 남성들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폭력남성들의 공통적 특성을 밝히는데 우선하였다. 하지만 행위자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인구사회학, 배경, 심리, 성격특질 등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서 폭력의 원인을 찾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폭력남편들의 특성이 연구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그들이 단일집단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

다. 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유형분류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최근 연구들은 보다 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하위유형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폭력집단이 세분화되는데는 유형에 따라 폭력 사용의 동기가 다르고, 그에 수반하는 심리내적 특성이 다르며, 부부관계의 발달단계와 발생상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Holtzworth-Munroe and Stuart, 1994). 그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한 폭력남편들의 특성은 연구방법이나 표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기 쉬운 것이다.

폭력남편들을 얹어 있어서 가정폭력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편의적 형태의 표본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국내외 행위자 특성과 유형에 관한 대다수 연구들은 상담기관에 접촉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스스로 원조를 요청한 내담자들과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체계에 의해 의뢰된 남성들이 섞여있다. 강제로 상담을 받는 경우와 문제행동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내담자들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 두 집단을 혼합함으로써 폭력남편에 대한 이해를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일반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폭력남편의 특성을 밝힌 연구들도 허점을 드러낸다. 확률표집을 사용한 전국조사라 하더라도, 연구들 대부분이 폭력남편을 일 년에 한번 이상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서, 연구 모집단이 사회개입을 요구하는 형사사법기관에 노출된 행위자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불분명하다. 이와 같이 폭력남성들을 구분하지 않은 채 표본에 의해 좌우되는 특성연구들은 혼란을 줄 수 있고, 행위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행위자 특성과 유형에 관한 경험적 증거들은 아내폭력을 설명하는 이론과도 연결된다. 폭력남편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한 것과 같이, 폭력이 일어나는 현상이나 원인변수들을 놓고 여러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으며 각 의견을 뒷받침해 줄 실증적 자료도 매우 부족하다. 아내폭력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개입의 형태도 달라질 것이다.

아내폭력을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론들은 심리학, 사회학, 여성학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심리학 분야(e.g., O'Leary, 1993; Dutton and Bodnarchuk, 2005)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심리정서적인 해석으로부터 행위자의 성격특질에 더 집중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회학자들(e.g., Gelles, 1993a)은 사회구조적 환경, 특히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사회제도로서의 가족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폭력에 대한 하위문화와 사회통제 관련 변수들이 거론되고 있다. 여성주의자들(e.g., Bograd, 1988; Yllo, 1993)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에서 그 뿌리를 찾으면서, 여성폭력을 허용하는 사회문화, 힘과 통제, 성차별적이고 부조리한 성역할 기대에 비중을 두었다. 이 세 관점들은 문헌 속에서 여전히 갈등대립하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위 이론들은 행위자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거나 적합할 수 있으며 통합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폭력남편들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특성을 가려내는 작업은 가설들을 정리하고 보완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비폭력 남편과 비교해서 아내폭력을 행사하는 두 형태의 집단의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유형별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폭력집단에 해당하는 두 유형은 공적기관과는 연관되지 않았으나 아내에게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과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받은 사법체계의 행위자들을 말한다. 이들 두 집단은 기존의 행위자 유형연구들처럼 통계적 분석을 통해 분류된 것이 아니라 샘플링 틀을 달리함으로써 구별되었다. 지역사회 폭력집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얻어진 자료이며, 사법체계 행위자들은 공적 사회서비스기관에서 선정되었다. 기존연구들은 일반인 또는 사법부에 연루된 가정폭력 행위자들만을 각 대상으로 하여 그 가운데에서 특성을 살펴보거나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했던 두 표본을 동시에 수집하여, 지역사회 폭력남편과 사법체계 행위자들을 종속변수의 범주로서 분류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와 사법체계 폭력남편을 대상으로 한 특성연구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는 주장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또한 한 쪽으로 치우친 대상자만을 갖고 통계적으로 분류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양쪽 집단을 포괄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구분된 각 유형들에 대해 보다 잘 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외국에서는 이미 통계중심의 유형분류에서 벗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연발생적 변수를 찾아 특성을 비교한 바 있다. 법원 의뢰 행위자들과 자발적인 내담자(Dutton and Starzmoski, 1993), 알코올 문제가 있는 남성과 없는 집단(Hamberger and Hastings, 1991)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부의 공권력으로 상담서비스를 받는 남성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발견한 폭력남편과 보호처분 대상자의 특성을 비교·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사회에 노출되지 않은 폭력남편들이 누구이며, 그들과 비교했을 때 법적 사회기관에 접촉한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어떤 측면에서 무엇이 다른지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두 유형이 단순히 경찰신고 유무에 의해서만 구분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하며, 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비폭력 집단과의 비교도 실행하였다.

나아가서 이 연구는 다른 통로를 통해 수집한 두 형태의 폭력집단이 어느 한 쪽의 이론적 설명에 더 부합되는지 탐색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문헌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폭력남편들의 성격 특질을 살펴보고 성격장애와 관련한 심리학적 해석이 설득력 있는지 검증해 보려고 한다. 세부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폭력남편, 사법체계 행위자와 비폭력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각 세 집단과 상관관계가 있는 특정 성격유형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별도의 두 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실시되었고, 처음 분석에서는 인구사회학 및 행동, 정서, 태도 변인, 나중 분석에서는 성격특질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아내폭력 행위자에 대한 우리의 사회복지실천이 유형별 개입을 구상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 폭력남편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사회구조 및 배경적 특성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인간행동을 예측한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폭력남편들의 연령, 사회적 지위 등 인구학적 변인들을 조사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웰스

(Gelles, 1993a)는 아내폭력은 젊은 연령층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며, 폭력행동 분석에 인간과 가족의 발달단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폭력과 연령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한 검증들(김갑숙, 1991; 김병수, 1999)도 적지 않다. 상당수 연구들(Straus and Gelles, 1990; 박경규, 1994; 김재엽, 1998)이 교육 정도가 낮은 집단이 상대집단에 비해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어떤 연구(Quigley and Leonard, 1996)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여러 편의 조사들(김갑숙, 1991; 박경규, 1994)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폭력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표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분석(Cunradi et al., 2002)에서도 소득이 아내폭력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스트레스가 소득/직업과 폭력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그들(Straus and Gelles, 1990)은 사회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폭력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도나 빈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신체적 폭력의 사용은 사회계층과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주장도 있다(Hiberman and Munson, 1978). 통계적으로 계층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중상층은 사적인 통로를 통해 사생활을 보호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은 사회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기관과 접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전국조사를 실시해서 경제 상태와 가정폭력의 무관한 관계를 보고한 연구(김재엽, 1998)를 통해 일부 지지를 받는다.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정숙영(1997)은 아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아내폭력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하였다. 스테인매츠와 스트라우스(Steinmetz and Straus, 1974) 역시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내보다 낮을 때 폭력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자원이 불충분한 저소득층 남성들이 아내를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하나의 자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회학자인 스트라우스(1980)는 스트레스가 폭력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다른 요인들과 결합될 때 폭력 발생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부정적인 생활사건, 특히 전통적으로 남성의 지배적인 위치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가정폭력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스트레스 사건에 초점을 맞춘 연구(Kishur, 1989)에 따르면,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일반남성들에 비해 정서적 외상을 주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했으며, 또 이에 대한 반응이 매우 격하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연구들에서는 폭력행동과 외적 스트레스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폭력남성의 노동 스트레스 수준이 비폭력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과(Barling and Rosenbaum, 1986)를 들 수 있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MacEwen and Barling, 1988)에서도 생활 스트레스가 폭력을 예측해주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어떤 이들(Rosenbaum and O'Leary, 1981)은 외적 스트레스 사건보다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폭력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또는 아동기의 폭력 피해경험이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하거나(van der Kolk, 1988) 스트레스에 폭력으로 대처하도록(Katz and Gottman, 1995)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폭력의 정적인 관계는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폭력남편들의 배경적 특성에서 알코올 문제를 빼 놓을 수 없다. 약물이론은 물질들이 인간에 내재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방출시키는 탈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즉, 약물이 초자아의 금지를 무

너뜨리고 인간의 생득적 또는 학습된 폭력 성향을 발산하도록 만든다고 전제한다. 워커(Walker, 1984)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67%가 알코올을 남용하고 있으며, 알코올 섭취로 인해 가치판단 능력이 손상되고 억제하려는 의지가 약화되면서 아내에게 더 심한 상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한다. 톨만과 베네트(Tolman and Bennett, 1990)가 분석한 13개 연구들을 종합하면 폭력을 행할 때 알코올을 복용한 사례는 23%에서 많게는 86%를 기록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폭력 당시 술을 마셨는가 여부보다는 만성적 알코올 남용이 아내폭력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편 알코올이 가정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결혼만족도를 통한 간접효과를 줄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Leonard and Blane, 1992). 알코올과 폭력의 매개요인에 관한 다른 문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Kantor and Straus, 1990), 성격장애(Hastings and Hamberger, 1988) 등을 찾아내었다. 현재까지도 알코올을 폭력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후자에 속하는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기대이론(Gelles, 1993b)이 약물학적 반응이라는 견해보다 더 각광을 받고 있다. 예지디스(Yegidis, 1992)가 언급했듯이, 알코올은 아내폭력 현상을 설명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폭력행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은 분명하다.

2) 정서 및 행동 특성

분노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e.g., Maiuro et al., 1988)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일반인보다 더 적대적이고 분노 수준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폭력남편의 분노 정도가 결혼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남성(Barnett and Planeaux, 1989), 또는 비폭력 남편들(Hastings and Hamberger, 1988)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기도 한다. 듀턴(Dutton, 1998)에 의하면,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남성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갈등이나 불안을 많이 느끼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들이 분노로 과잉 분류될 수 있다고 말한다.

행위자들의 높은 질투심은 쉽거나 상담기관 등에서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 임상적 보고들(Bowlby, 1984; Saunders, 1984)은 이들의 아내에 대한 질투심과 소유욕은 매우 강하며, 그로인해 피해여성들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행위자들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나누는 대화를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아내로부터 의심스러운 혐의에 대한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행위자들이 비행위자들보다 의심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는 분석(Maiuro, et al., 1988)이 있는가 하면, 질투와 폭력간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질투심은 부부관계만족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Barnett, Martinez, Bleustein, 1995)도 있다.

폭력남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7배(50% vs. 7%)나 높다고 한다(Straus, 1983). 장희숙(2003)은 가정폭력 쉽터에 거주한 72명 아동과 76명 비폭력가정 아동을 비교한 결과,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방임,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에서 두 집단간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했다.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남성들이 상대집단보다 자녀들에게 여러 형태의 학대를 각기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호탈링과 슈거만(Hotaling and Sugarman, 1986)은 52개 연구들을 분석해서 아내폭력 발생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밝혀냈다. 그들은 아내폭력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세 개 요

인들 중 하나로 자녀폭력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된 위험요인(consistent risk marker)으로 정해서 주목하였다.

3) 태도 특성

아내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는 폭력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문화와 가부장적 사회 및 가족구조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들은 어느 정도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의 정당성에 관해 사회화된 유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 대학 남학생 표본의 79%가 상황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정당하다고 답변하고 있었다(Briere, 1987). 스미스(Smith, 1990)는 가부장적 사고를 지닌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내폭력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또는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가 아내폭력 발생률을 높인다고 보고되기도 한다(Dibble and Straus, 1980). 반면 260명 행위자와 일반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Neidig et al., 1986)에서는 아내폭력 허용태도에 관한 측정을 하였으나 두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성역할 기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개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에 대해 힘과 통제력을 갖도록 사회화되며, 폭력이 이러한 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Bograd, 1988). 행위자들은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정형화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강한 남성상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전통적 성역할의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아내에게 행하는 지배적, 공격적 행동을 통해 남성적 이미지를 보상하고자 한다(Rosenbaum, 1986). 여러 연구들(Rosenbaum and O'Leary, 1981; Martin, 1986; Morrison, 1997)에서 행위자들이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오스먼드와 마틴(Osmond and Martin, 1975)은 성역할 태도를 평등-불평등의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즉,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지배형, 근대적 성역할 태도는 부부평등형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부부권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Coleman and Straus, 1990)는 동등한 파워를 가진 부부들이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된 커플에 비해 폭력 발생률이 훨씬 낮음을 발견하였다. 또 달리는 남성우월 의식과 연관 지어 행위자들의 파워와 통제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살펴보기도 한다. 곤돌프(Gondolf, 1985)는 폭력남편들이 아내의 독립적인 결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가정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성역할 기대와 관련해서 부부의 권력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실생활에서의 결정권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4) 성격 특성

가정폭력이 사회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폭력의 원인이 행위자의 심리내적 문제, 특히 성격장애에 기인한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일반인의 상식적인 생각에서도 아내폭력은 개인의

정신병리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심리학적 관점은 지난 30년간 주류를 이루었던 여성주 의나 사회학 이론들에 의해 소수 의견으로 밀려났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격장애와 아내폭력의 밀접한 관계가 다시 학계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 접근법에 속하는 정신분석이론은 초기 아동기 경험, 즉 양육자로부터의 거부, 과도한 의존, 외상 등이 자아기능을 손상시키고, 이를 겉으로 포장하고 있는 과장된 남성다움과 같은 병리적 성격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이들은 충동조절 능력이 약하고 좌절감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며, 수동-공격적, 편집증적, 가학적 행동을 하게 된다. 또한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질투심이 많고 남성우월의식이 지나치게 강한 심리내적 요인들이 공격적인 행동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초기 아동기의 발달상 요인들이 폭력행동의 중요 예측요인임을 발견한 연구들(e.g., Bowlby, 1988)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애정이 결핍된 환경을 경험한 이들이 부적응적인 관계모형을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철수, 회피, 위협, 공격성과 같은 역기능적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상당수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했으며, 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고 밝히고 있다(van der Kolk, 1988).

듀턴(1995, 1998)은 '학대적인 성격(abusive personality)'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폭력남편들이 수치심, 비난, 애착불안을 기반으로 하는 격노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의하면, 아동기 때 경험한 수치심, 불안정한 애착의 결합, 폭력 등이 배우자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로 이어지고, 분노, 질투심 등을 촉발시키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조장한다. 그는 '학대적인 성격'이 경계선적 성격장애와 흡사하다고 분석하였다. 햄베르거와 헤스팅스의 두 연구(Hamberger and Hastings, 1986, 1991)는 행위자들의 경계선적 성향을 발견함으로써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반면 하트 외(Hart et al., 1993)는 자발적, 비자발적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표본의 60%가 수동-공격적이면서 가학적 공격성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성격이 행위자들의 가장 보편적인 특질이라고 밝힌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한 폭력남편들이 법원에 의해 의뢰된 행위자들보다 더 심각한 심리 및 성격장애 문제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비폭력 집단과 비교한 연구들에서, 경계선성, 자기애성, 가학적 공격성, 수동공격성(Murphy et al., 1993), 또는 자기에, 반사회적, 공격적, 경계선적 성향(Beasley and Stoltenberg, 1992)이 행위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폭력남편들이 성격장애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만, 연구들마다 다양한 성격특질을 말하고 있어서 행위자들에게 과연 보편적인 성격유형이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곤돌프(1999)는 편향된 표본과 측정도구의 결함으로 성격특질 연구들의 통계치가 과장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새로 개발된 MCMI-III 척도를 기초로 북미 4개 도시의 840명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성격특성 연구를 제시도하였다. 기존연구들의 MCMI-I 혹은 MCMI-II에 의해 산출된 통계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한 번이라도 11개 성격척도에서 장애수준에 속하는 경우는 훨씬 낮은 48%를 기록한다(vs. 약 80%). 외국에서는 이처럼 논쟁이 활발한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행위자의 성격특질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앞으로 진행할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절차

본 연구는 공적 사회서비스기관에 노출되지 않은 폭력남편들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2003년 에 6개월에 걸쳐 지역사회의 일반 남성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가정폭력범죄 보호 처분을 받은 남성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가정폭력 행위자와 접촉하는 전국의 사회서비스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보호관찰소와 상담위탁기관의 협조를 얻은 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기관의 상담원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이후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지역사회 대상자들의 설문은 연구조사원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혼남성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남성들은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에 자기기입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대표성 추정이 특히 어려운 일반인에 대한 편의표집은 이 연구의 한계이며 본 자료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불성실한 응답 사례를 제외하여, 가정폭력 행위자 336명, 일반인 234명이 분석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일반인 대상 234 설문조사에서 지난 일 년 동안 한 번 이상 아내에게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남성들이 82명,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례가 152명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최종 연구표본은 보호처분을 받고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 의뢰된 336명 행위자, 형사사법기관과의 접촉은 없으나 폭력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지역사회의 82명 폭력남편, 그리고 152명 비폭력 남성들로 구성되어 총 570명이다.

2) 측정도구

설문내용은 아내폭력을 설명하는 이론과 폭력남편 특성을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준화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폭력행동

아내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스트라우스가 1979년 개발하고 1996년에 수정·보완한 갈등관리 척도(Conflict Tactic Scale2: CTS2)를 사용하였다. CTS2는 기존의 CTS에 비해 보다 다양한 폭력행위를 포함시키고 응답 왜곡 가능성을 줄이도록 수정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총 12개 신체적 폭력 항목에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회수를 '없음'에서 '일 년에 20번 이상'까지 7점 리커트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스트라우스 연구(1979)에서 신체적 폭력에 대한 내적 상관계수는 α 값은 .83이며, 본

연구에서 조사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6이다. 신체적 폭력에 의해 비폭력 남성과 지역사회 폭력집단이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 변인은 최종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 알코올 의존도

알코올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시건 알코올 선별검사(Michigan Alcohol Screening Test: MAST)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25개 문항으로 문제성 음주의 결과와 음주에 대한 대상자 자신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Selzer, 1971). 본 연구에서는 10문항으로 수정된 Brief MAST(Pokorny et al., 1972)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전체 10문항에 대해 '예'와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며, '예'로 응답한 수를 합산하여 알코올 의존도를 계산하게 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 α 값은 .71이다.

(3) 스트레스

스트레스 수준은 아벨(Abell, 1991)의 임상 스트레스 척도(Index of Clinical Stress)를 사용해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보다는 스트레스 경험에 따른 일반적인 감정 상태를 다루고 있으며, 응답자의 인지된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응답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원척도의 신뢰도 계수 α 값은 .96으로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을 지니며, 본 연구에서도 .82로서 높은 편이다.

(4) 분노

분노 측정은 노바코(Novaco, 1975)가 개발한 분노 척도(Anger Index)에 의해 이루어졌다. 원 척도에서는 30개의 상황 질문이 주어지게 되는데, 21개 문항은 배우자와의 상황을 제시하며, 9개 문항은 친구나 직장 동료와의 상황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관련 8개 문항을 선택하여 수정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에서 '매우 화가 난다'까지 5점 리커트 방식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5) 질투심

질투심은 화이트(White, 1977)에 의해 고안된 질투심 척도(Jealousy Scale)를 사용해서 측정되었다. 질투심 척도는 7단계 리커트 양식으로 응답하게 되며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응답 점수는 0-42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질투심이 강함을 나타낸다. 본 자료의 α 값은 .85이다.

(6)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더스 외(Saunders et al., 1987)가 제작한 아내폭력에 대한 신념 척도(The Inventory of Beliefs about Wife Beating: IBWB)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12개 문항으로 수정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척도의 내부 신뢰도 계수는 .77에서 .88의 범위를 가지며(Saunders et al.,

1987), 본 연구의 α 값은 .84이다.

(7) 부부평등결정권

부부평등결정권은 결정권 척도(Decision Power Index, Blood and Wolfe, 1960)를 사용해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차 구입, 자녀 출산, 집/아파트 구입, 아내 또는 본인의 직장 문제 등을 결정할 때 부부가 동등한 파워를 행사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 쪽이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균등한 결정 파워를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의 더미변수를 만들어 최종분석에서 사용하였다.

(8) 자녀폭력

자녀폭력은 스트라우스(1979)의 CTS를 토대로 심각한 수준에 해당하는 신체적 폭력 4문항을 구성해서 측정했다. 여기에는 자녀를 밀쳐서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발, 주먹, 도구 등을 사용해서 때리는 폭력행동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전혀 없음'에서 '거의 매일'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신뢰도 계수는 .71이다.

(9) 성격특성

성격특성은 밀론(Millon, 1994)이 개발하고 수정·보완해서 가장 나중에 완성한 밀론 다축임상검사 3판(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 MCMI-III)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개인의 성격, 정서적 적응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임상적 증상 뿐 아니라 잠재적인 성격상 문제와 성격장애에 이르기까지 성격 관련 특질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다. MCMI-III는 DSM-IV의 진단기준과 잘 부합하며, 성격기질 차이를 명백하게 구별해냄으로써 성격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 1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예/아니오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채점과정에서 원 자료는 성격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BR(base rate)점수로 환산된다. BR점수가 75점 이상이면 일반기준보다 장애를 예견하는 징후가 많은 것으로 해석한다. MCMI-III는 자체 평가에서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참조하여, 가정폭력 행위자들에게 빈번하게 발견되는 6개 성격유형(회피성, 의존성, 자기애성, 반사회성, 수동공격성, 분열성)과 1개의 심한 성격병리(경계선), 2개 임상적 증후(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10)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반응

조사대상자의 테스트 받는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반응척도(Social Desirability Response Bias: SDRB, Crowne and Marlowe, 1964)의 축약판 척도를 사용했다(Greenwald and Satow, 1970). 수정된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로 10개 문항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 α 값은 .76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을 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다음, 공적 사회서비스기관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폭력집단,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받은 행위자 집단, 비폭력 집단에 속할 예측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비폭력, 지역사회 혹은 사법체계 폭력집단의 세 범주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폭력집단을 기준(reference)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비폭력 집단과 사법체계 폭력집단간 비교에서는 후자를 기준범주로 하였다. 끝으로, 위의 세 집단을 설명하는 성격특질을 밝히기 위해 MCMII 175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총 333 사례를 대상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앞의 회귀모형과 마찬가지로 기준범주는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이고, 비폭력과 사법체계 폭력집단의 비교에서는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이 기준이 된다.

행위자들이 스스로 보고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 여부는 가정폭력 관련 연구들의 가장 심각하면서도 지속적인 문제이다. 행위자의 테스트 받는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반응(SDRB)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남성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태도, 행동 및 정서 변인들의 반응편차를 줄이기 위해 SDRB를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알코올, 스트레스, 질투, 분노,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 자녀폭력, 아내폭력의 7개 변인들의 점수가 분석과정에서 조정되었다. 이는 단순회귀분석을 활용하여 SDRB 점수로부터 표준화되지 않은 회귀계수를 산출한 후, 그것으로 원점수의 값을 조절하는 방법이다(참조: Saunders, 1991). 이 기법은 표본 크기를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분석방법이나 조사도구 선택에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4.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표 1〉 세 집단에 대한 기술분석

특성	비폭력 집단 n=152	지역사회 폭력집단 n=82	사법체계 폭력집단 n=336
연령	M(SD)	M(SD)	M(SD)
교육수준	43.70(11.22)	44.65(11.72)	43.42(8.12)
월수입	14.28(3.61)	12.83(2.84)	11.17(3.42)
결혼기간(개월)	250.11(149.33)	200.46(88.42)	194.75(130.38)
스트레스(a)	178.90(140.10)	205.35(153.78)	166.79(109.09)
알코올(a)	16.32(6.16)	18.66(6.82)	17.14(6.94)
질투(a)	1.09(1.34)	1.25(1.44)	1.95(2.05)
분노(a)	13.95(4.86)	16.16(7.53)	17.63(6.58)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a)	27.05(5.51)	28.26(5.57)	28.04(5.36)
자녀폭력(a)	64.92(10.42)	58.86(10.24)	54.43(10.96)
신체적 폭력	0.23(0.57)	0.81(1.15)	0.87(1.36)
신체적 폭력(a)	.00(.00)	4.93(5.50)	7.85(7.92)
	- 0.02(0.08)	4.91(5.50)	10.12(7.51)
종교: 있음(vs. 없음)	n(%)	n(%)	n(%)
직업: 있음(vs. 없음)	90(59.2)	56(68.3)	221(65.8)
아내와 동거:	146(96.1%)	81(98.8%)	310(92.3%)
예(vs. 아니오)	151(99.3%)	81(98.8%)	238(70.8%)
부부평등결정권:	64(42.1%)	19(23.5%)	93(29.7%)
예(vs. 아니오)			

(a) adjusted score

동거여부: 예=결혼/재혼/동거, 아니오=별거/이혼/사별

〈표 1〉은 비폭력 남성(n=152), 지역사회의 폭력남편(n=82),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들(n=336)의 일반적 특성을 집단별로 요약한 도표이다. 전체 570명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3.67(SD=9.60)이며,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M=44.65, SD=11.72)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다소 나이가 많고, 보호처분을 받은 사법체계의 행위자들(M=43.42, SD=8.12)이 적은 편이다. 연령분포와 비슷하게,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의 결혼기간(M=205개월, SD=149)이 가장 길며, 행위자 집단이 평균 167개월로서 가장 짧다.

평균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은 고등학교 졸업(M=12.24, SD=3.65)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폭력 남편들은 대학교 2년(M=14.28, SD=3.61), 사법체계 행위자들은 고등학교 2년(M=11.17,

SD=3.42)의 평균 교육연수를 나타내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월평균 수입은 약 210만원(SD=128)이며, 비폭력 남성들의 소득(M=250만원, SD=149)이 사법기관에 연루된 행위자들(M=195만원, SD=122)보다 55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은 폭력집단의 무직 비율이 8% 정도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따라서 학력, 수입, 직업유무에 관한 집단간 비교는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한편 종교에 있어서는 비폭력 남편들의 41%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해서 다른 두 집단의 남성들보다 무교 비율이 높았다.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 비폭력 집단과 지역사회 폭력집단은 개신교가 각각 31%, 34%로 가장 높았고, 사법체계 폭력집단에서는 불교(35%)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비폭력 남편이나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은 대부분(약 99%) 결혼 상태를 유지하며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보호처분을 받은 남성들은 이혼(15%), 별거(14%) 등으로 아내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29%에 이른다.

〈표 1〉에서는 남성들이 스스로 보고한 신체적 폭력에 이어 사회적 바람직성 태도에 의해 조정된 점수가 함께 제시되었다. 사법부로부터 처벌을 받은 행위자 집단이 사회기관과 접촉하지 않은 지역사회의 폭력집단보다 폭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의 폭력 차이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하면 더 큰 폭으로 벌어진다. 자기보고와 통계적으로 조정된 수치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이 상대적으로 더 솔직하게 자신들의 폭력행동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폭력남편(M=3.98, SD= .67)과 비폭력 남성(M=4.01, SD= .88)들이 사법체계 행위자들(M=4.14, SD= .70)보다 덜 방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세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55, p=.213$).

알코올 의존도와 질투 수준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장 높고, 지역사회 폭력남편, 비폭력 집단 순이다. 반면 폭력성이 낮은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이 사법처벌을 받은 남성들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M=18.66, SD=6.82)를 받고 있으며, 아내에 대한 분노 수준(M=28.26, SD=5.57)이 높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부가 같이 결정하는 비율(23.5%)이 더 낮았다. 사법체계의 행위자 집단은 아내폭력을 허용하는 정도와 자녀폭력 빈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표 2〉 세 집단의 남편주도형 비율(%)

	비폭력 집단	지역사회 폭력집단	사법체계 폭력집단
차 구입	28.9	38.3	27.1
자녀출산	7.2	14.8	8.6
집/아파트 구입	15.8	22.2	14.9
아내 직업 유무	7.9	18.5	14.9
본인 직장 유지/변경	29.6	43.2	40.1

〈표 2〉는 세 집단의 남편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세부적으로 살펴본 내용이다. 부부평등결정권 변인은 부부가 평등하게 결정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가

부장적 의식을 기반으로 한 부부의 권력구조를 하나의 행동지표를 통해 살펴본 것이기도 하다. 의사결정 권력에서 불평등한 부부의 경우, 아내가 주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아내주도형과 남편이 결정하는 남편주도형으로 나뉜다. 아내주도형 빈도는 집단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남편주도형에 관한 비율만 제시하였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다섯 개 항목들 모두에서 지역사회 폭력집단이 가장 높은 남편주도형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예상과 달리, 사법부에서 의뢰한 행위자들은 아내/본인의 직업에 관해서는 남편주도권 수치가 다소 높지만 나머지 항목들에서는 비폭력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 세 집단의 특성 비교

본 연구는 세 개 다른 범주의 예측변수를 밝히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표 3>은 독립변수 11개를 포함한 모형의 분석결과이다. 사전에 신체적 폭력 여부에 의해 비폭력과 지역사회 폭력집단이 분류되었기 때문에 아내폭력 변인은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다. 분석모형은 기저모형에 비해 적합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으며($\chi^2=196.82$, $df=22$, $p<.001$), 포화모형과의 비교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Deviance $\chi^2=705.95$, $p>.05$). 표의 윗부분은 비폭력 또는 지역사회 폭력집단, 아랫부분은 사법체계와 지역사회 폭력집단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효과 추정치이다.

비폭력 집단과 지역사회 폭력집단을 차별화하는 변수는 자녀폭력($p=.000$), 부부평등결정권($p=.029$)과 소득($p=.045$)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은 자녀폭력이다. 자녀에게 심한 신체적 폭력을 많이 사용하는 남성들이 '지역사회 폭력집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집안의 중요한 일을 아내와 함께 결정하는 남편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폭력을 사용할 확률이 0.4배 낮았다. 즉, 부부의 균등한 힘의 분배가 아내폭력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모든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이 한 단위씩 증가함에 따라 '비폭력 집단'에 속할 예측 odds는 1.003배 높아진다.

사법체계에 노출되지 않은 폭력남편들은 노출된 집단과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들보다 학력($p=.000$)이 높고, 결혼기간($p=.004$)이 길며, 알코올 의존도($p=.013$)가 낮았다. 아내폭력에 대한 허용도($p=.003$)는 낮는데 비해 스트레스 수준($p=.041$)은 사법체계 행위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분노 또는 질투심 등 정서적 요인들은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폭력 혹은 지역사회 폭력집단에 속할 주요 예측변인으로 발견되었던 부부평등결정권과 자녀폭력은 지역사회와 사법체계의 폭력집단간 비교에서는 의미가 적게 나왔다.

〈표 3〉 세 집단의 예측요인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N=570)

변인	B(SE)	Exp(B)	p
<비폭력 집단>			
연령	.033(.037)	1.034	.362
학력	.064(.055)	1.066	.249
수입	.003(.001)	1.003	.045
결혼기간	- .002(.003)	.998	.601
알코올(a)	.203(.112)	1.225	.071
스트레스(a)	- .027(.026)	.974	.303
질투(a)	- .040(.029)	.961	.164
부부평등결정권	- .820(.375)	.441	.029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a)	.023(.016)	1.023	.165
자녀폭력(a)	- .820(.222)	.440	.000
분노	- .011(.034)	.989	.742
상수	-1.406(2.226)		.528
<사법체계 폭력집단>			
연령	.032(.032)	1.032	.324
학력	- .177(.050)	.838	.000
수입	.001(.001)	1.001	.516
결혼기간(개월)	- .007(.003)	.993	.004
알코올(a)	.237(.095)	1.268	.013
스트레스(a)	- .047(.023)	.955	.043
질투(a)	.026(.025)	1.026	.299
부부평등결정권	- .524(.351)	.596	.143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a)	- .045(.015)	.956	.003
자녀폭력(a)	- .137(.116)	.872	.236
분노	- .002(.030)	.998	.938
상수	6.493(1.997)		.001
-2 Log likelihood		705.954	
Chi-square(df) p		196.815(22) p= .000	

a: adjusted score

1= 비폭력집단; 2=사법체계의 폭력집단; 3=지역사회의 폭력집단(the reference category)

한편 비폭력 남성들과 사법체계 폭력집단을 비교하기 위해, 기준범주만을 달리하고 위에서 제시한 동일한 회귀모형을 재실행하였다($\chi^2=196.815$, $df=22$, $p=.000$). 분석결과에 따르면(〈표 4〉 참조), 교육수준($p=.000$), 질투($p=.006$), 자녀폭력($p=.001$),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p=.000$)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변수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학력이 낮거나, 질투심이 많고, 자녀에게 심각한 형태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며, 아내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처벌을 받는 행위자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지역사회와 사법체계의 폭력집단간 비교는 〈표 3〉의 아랫부분과 동일하므로 생략하였다.

〈표 4〉 세 집단의 예측요인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N=570)

변인	B(SE)	Exp(B)	p
<비폭력 집단>			
연령	.002(.028)	1.002	.949
학력	.241(.044)	1.272	.000
소득	.002(.001)	1.002	.069
결혼기간	.006(.002)	1.006	.010
알코올(a)	- .034(.085)	.966	.684
스트레스(a)	.020(.021)	1.020	.350
질투(a)	- .065(.024)	.937	.006
부부평등결정권	- .302(.283)	.739	.285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a)	.068(.014)	1.071	.000
자녀폭력(a)	- .683(.210)	.505	.001
분노	- .009(.026)	.991	.737
상수	-7.899(1.79)		.000

1= 비폭력집단; 2=사법체계의 폭력집단(the reference category); 3=지역사회의 폭력집단

3. 성격특질에 관한 세 집단간 비교

〈표 5〉 세 집단의 임상적 성격패턴/증후군 비율(%)

성격특성	비폭력집단 (n=106)	지역사회 폭력집단 (n=62)	사법체계 폭력집단 (n=165)
	≥ 75	≥ 75	≥ 75
의존성	33	43.5	47.3
경계선성	7.5	12.9	16.4
반사회성	0	3.2	4.2
수동공격성	12.3	38.7	21.8
회피성	30.2	41.9	37
분열성	11.3	9.7	12.7
자기애성	17	24.2	9.7
불안	37.7	61.3	32.7
외상후스트레스증후	0.9	1.6	3

전체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MCMI 척도 175문항에 모두 응답하여 〈표 5〉에 있는 성격특질들이 도출된 사례는 총 333명이다. 여기에는 비폭력 집단 106명(70%), 지역사회 폭력집단 62명(76%), 보호 처분 집단 165명(49%)이 포함되어, 사법체계 폭력집단의 표본크기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다. 설문에 성실하게 답해준 남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례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표본편향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성격특질에 관한 분석은 탐색적 경향이 강하다. 사례수가 많이 줄어든 사법 체계 폭력집단에서 MCMI 응답/무응답 대상자들을 비교해 보았다.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모든 변수

들 가운데 자녀폭력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t=-2.62$; $p<.01$), MCMI 척도에 불성실하게 답한 남성들이 자녀폭력을 더 자주 행하고 있었다. 한편 집단별로 MCMI에 있는 성격 및 임상증후군의 평균점수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50-65점 사이를 기록하고 있으며 70점을 넘는 경우는 없었다. 비폭력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세 집단의 평균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는 외국문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폭력남편들의 성격유형에 관심을 갖고, 행위자들이 특정 성격기질을 갖고 있는지, 그 정도가 장애 수준인지 살펴보았다. <표 5>는 MCMI 척도에서 장애를 예측하는 징후가 많다고 보는 7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례들의 비율을 집단별로 요약한 것이다. 비폭력 남성들에 비해 두 형태의 폭력남편들은 의존적 성향이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폭력집단은 수동공격성(38.7%), 회피성(41.9%), 자기애성(24.2%), 불안(61.3%)에서 75점을 넘는 사례수가 가장 많았다. 다른 두 집단보다 사법부 처벌을 받은 집단은 의존성(47.3%), 경계선성(16.4%), 반사회성(4.2%), 분열성(12.7%), 외상 후 스트레스(3%)의 증후를 갖은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불안 증상은 세 집단 중 가장 적은 편이다.

<표 6> 성격특질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N=333)

변인	B(SE)	Exp(B)	p
<비폭력 집단>			
의존성	-.008(.012)	.992	.482
경계선성	.011(.013)	1.011	.422
반사회성	-.006(.010)	.994	.556
수동공격성	-.042(.011)	.959	.000
회피성	.012(.010)	1.012	.219
분열성	-.002(.009)	.998	.827
자기애성	-.009(.012)	.991	.437
불안	-.012(.009)	.988	.152
외상 후 스트레스	.004(.010)	1.004	.722
상수	3.407(1.171)		.004
<사법체계의 폭력집단>			
의존성	.008(.011)	1.008	.504
경계선성	.007(.012)	1.007	.586
반사회성	.008(.009)	1.008	.349
수동공격성	-.032(.010)	.968	.001
회피성	-.010(.009)	.990	.233
분열성	.000(.008)	1.000	.994
자기애성	-.023(.011)	.977	.028
불안	-.010(.008)	.990	.213
외상 후 스트레스	.029(.010)	1.030	.002
상수	3.241(1.093)		.003
-2 Log likelihood		601.572	
Chi-square(df) p		81.275(18) p= .000	

1= 비폭력 집단; 2=사법체계 폭력집단; 3=지역사회 폭력집단(the reference category)

앞의 회귀분석에 이어 이번에는 성격특질 변수들만을 갖고 세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표 6>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방정식($\chi^2=81.28$, $df=18$, $p=.000$)은 가정폭력 행위자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9개 성격특질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은 비폭력 남편들보다 수동-공격적 성향($p=.000$)이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와 사법체계의 폭력집단간 비교에서는 3개 성격특성들이 발견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대상자들에 비해 수동공격성($p=.001$)과 자기에성($p=.028$) 성격 특질이 두드러진다. 반면 사법체계 폭력집단은 지역사회 폭력집단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p=.002$)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7> 성격특질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N=333)

변인	B(SE)	Exp(B)	p
<비폭력집단>			
의존성	-.016(.009)	.984	.080
경계선성	.004(.010)	1.004	.689
반사회성	-.014(.008)	.986	.076
수동공격성	-.009(.008)	.991	.250
회피성	.023(.008)	1.023	.004
분열성	-.002(.007)	.998	.770
자기에성	.014(.010)	1.014	.176
불안	-.002(.006)	.998	.756
외상 후 스트레스	-.026(.008)	.975	.002
상수	.166(.943)		.860

1= 비폭력집단; 2=사법체계 폭력집단(the reference category); 3=지역사회 폭력집단

<표 7>은 사법체계 폭력집단을 기준범주로 해서 비폭력 집단과 비교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chi^2=81.28$, $df=18$, $p=.000$)의 결과이다. 지역사회와 사법체계 폭력집단들의 비교는 <표 6>의 아랫부분과 같은 결과이므로 표시하지 않았다. 법원의 처벌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비폭력 남편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p=.002$) 증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반면 회피적 성향($p=.004$)은 오히려 비폭력 남성들에게서 강하게 드러난다. 비록 $p<.05$ 에 미치지 못했으나,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의존성($p=.080$)이나 반사회성($p=.076$) 성격기질에서 상대집단과 다소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과 사법부의 처벌을 받은 아내폭력 가해 남성들의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다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52명 비폭력 남성들과 형사사법체계 사회기관과 접촉한 적이 없는 82명 폭력남편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받은 336명 행위자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해서 비교하였다. 기술통계에 의하면,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들보다 신체적 폭력의 빈도가 2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심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들이 공적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회에 모습을 드러낼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

인구사회학, 배경, 정서, 행동 및 태도 특성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폭력 또는 지역사회의 폭력집단을 예측하는 요인들은 자녀폭력, 부부평등결정권, 소득으로 나타났다. 아내폭력의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폭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자녀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가정의 중요한 일들을 독단하는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편에 속한다.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비폭력 남성과 비교한 사법체계 행위자들은 다른 측면의 특성을 나타낸다. 법원의 처벌을 받은 행위자들은 아내폭력을 허용하는 태도, 학력, 자녀폭력, 질투심에서 비폭력 남편들과 구별되고 있었다.

자녀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은 유형에 관계없이 폭력남편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드러났다. 호탈링과 슈거만(1986)은 52개 연구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녀폭력과 아내폭력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이 모두 일관되게 높은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스트라우스(1990)도 자녀에게 신체적 처벌을 허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내폭력 발생률을 68% 더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성차별적이고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문화는 개인의 가족체계와 주변 환경요인들과 결부되면서 폭력남편의 특성으로 자리매김을 한 듯하다. 남성우월 의식을 기반으로 한 힘의 불균형과 아내폭력에 대한 정당화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폭력집단 유형에 따라 두 변인들의 영향이 각기 다르다. 폭력성이 낮은 남성들에게는 가장 중심적 이데올로기가 더 강한 특질로 나타나고, 폭력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는 지역사회와 사법체계의 남성들을 구분하는 특징으로도 밝혀졌다. 그렇다면, 아내폭력을 정당화하는 사고가 남성이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치관보다 폭력을 증가시키는 더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폭력성이 높을수록 더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들(e.g., Saunders, 1992; 장희숙·김예성, 2004)도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 할 부분이 있다. 우선 본 연구가 측정된 부부평등결정권, 즉 실제로 부부가 의사결정 파워를 동등하게 갖고 있는지 여부와 개인의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유사한 개념을 반영한다 해도 권력결과로서 나타난 특

정행동과 전반적인 태도는 다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자기보고 응답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가능성이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에 의하면,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은 비교적 솔직하게 응답하고 있으나 사법체계 행위자들은 정직하지 못한 답변을 하고 있었다. 부부평등결정권은 더미변수로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점수가 조정되지 못했고, 그것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한편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변인들도 폭력남편의 유형에 따라 다른 예측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은 소득 수준에서, 사법체계 행위자들은 학력에서 비폭력 남성들과 유별한 차이를 보인다. 최근 연구(Cunradi et al., 2002)는 전국표본조사를 통해 소득 수준이 학력/직업보다 아내폭력 가능성을 더 잘 예견하고 있다고 말한다. 소득은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지표이며,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이 이러한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교육연수는 사법체계 남성들을 다른 두 집단과 구분하는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낮은 학력과 심각한 아내폭력간의 상관관계가 실제로 높은 것이다. 또 다르게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이들이 사회기관에 노출되기 쉬운 현상에서 비롯되거나, 혹은 본 연구가 사용한 임의표본에서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여하튼 이 자료에서는 사회계층에서의 지위가 직·간접적으로 폭력과 연관된다는 사회구조적 가설을 크게 부인하기는 어려운 듯싶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사회에 노출되지 않고 있는 폭력남편들과 사법부 처벌을 받는 남성들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두 집단을 비교한 분석에서 지역사회 폭력남편은 사법체계 남성들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사회 폭력남성들의 특성은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결합해서 폭력을 야기한다는 사회학자들의 설명을 가능케 한다. 특히 스트레스와 폭력의 매개변인에 관한 보고서(i.e., Straus, 1990)와 흡사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스트라우스 연구(1990)에 의하면, 본인이 의사결정 권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남편들이 그러한 남성지배적 규범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에 비해 폭력을 사용할 확률이 288% 높다고 한다. 또한 두 집단 모두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집안의 결정을 남편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민주적인 가정보다 3배 이상의 높은 폭력 발생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의 연구표본이 본 연구의 지역사회 폭력남편들과 비슷하고, 동일한 척도로 부부권력을 측정한 터이라 두 연구의 같은 결과는 주목되는 바이다. 저자가 주장하고 있듯이, 결혼생활에 있어서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남편들 경우, 스트레스와 폭력의 상관관계는 높아지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관련성은 폭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해당하며, 심각한 폭력집단에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알려주고 있다.

가정폭력범죄 행위자들은 사회기관에 드러나지 않은 폭력남편들에 비해 알코올 문제와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즉, 스트레스 보다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태도, 알코올 남용이 주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유형연구들(e.g., Holtzworth-Munroe and Stuart, 1994)이 제시한 '반사회적이며 폭력성이 높은 집단'과 유사해 보인다. 이들은 폭력의 정도가 가장 심각하고, 아동기에 심한 학대를 당했으며, 약물남용이 심하고, 폭력의 허용도가 매우 높은 반사회적 성격패턴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 유형연구들이 상담기관에 접촉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사법체계 폭력남편들은 문헌에서 분류한 2-3개 유형을 합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사회 폭력남편들과 비교한다면, 사법체계 행위자들은 대체로 위에서 묘사한 유형에 해당된다.

국내문헌에서 폭력남편들의 성격특질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는 편이다. 게다가 외국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성격기질을 분석하는 작업이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국내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과연 폭력남편들은 병리적인 성격기질을 갖고 있는가? 본 연구는 비폭력 집단 106명, 지역사회 폭력남편 62명, 가정폭력 행위자 165명을 대상으로 MCMI 척도에서 제시하는 성격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평균점수에서 성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BR score \geq 75) 하위특성은 세 집단 모두에서 하나도 없었다. 집단마다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기록한 것은 의존성이며, 비폭력 집단 60(SD=19.6), 지역사회 67(SD=15.9), 사법체계 폭력집단 68점(SD=15.5) 순이다. 개인별로 조사해보았을 때, 성격장애를 예측하는 징후가 많다고 보는 75점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척도마다 0%-47% 분포를 보인다. 표본의 20% 이상이 75점을 기록하거나 넘는 성격유형은, 지역사회 남성들은 의존성, 회피성, 수동공격성과 자기애성, 사법체계 집단에서는 의존성, 수동공격성으로 나타났다. 집단의 평균과 개인별 비율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폭력남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임상적 성격패턴은 의존성, 수동공격성, 자기애성, 회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곤돌프(1999)의 연구결과와 가깝고, 햄베르거와 해스팅스(1986, 1991), 듀틴(1998)이 주장하는 경계선적 기질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본 자료는 곤돌프(1999)의 의견대로, 폭력남편들이 최근 심리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은 병리적이 아님을 시사한다.

성격특질만을 갖고 세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수동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법체계 행위자들보다 자기애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폭력남성들이 선명한 패턴을 보이는데 반해 가정폭력범죄 처벌 대상에게서는 임상적 성격유형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트 외 연구(1993)에서도 자발적인 내담자들이 법원의뢰 남편들보다 더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도 지역사회 남성들이 오히려 성격기질 문제를 더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 대상자들의 축소된 표본크기로 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법체계 집단은 다양한 성격유형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듯하다. 대신 임상적 증후군에 속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그들의 고유한 특성으로 밝혀져서 관심을 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폭력남편들은 아내폭력 관련 이론들이 제시하는 여러 요소들을 복합해서 가지고 있다.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폭력현상은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통합적이고 다차원적 관점에서 바라봄이 옳을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면서, 행위자 유형에 따라 각 이론의 차지하는 비중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은 스트레스나 부부권력에 관한 이론, 사법체계 행위자들은 폭력을 허용하는 문화나 사회학습, 약물이론과 더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편 자녀폭력 사례를 접하는 실무자들은 부부폭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아내폭력 가정에 개입하는 이들은 자녀에 대한 폭력 여부도 문제사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폭력에 대한 허용태도와 알코올 의존도는 아내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의 폭력 수준을 기능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기관 뿐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사회기관들에서도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폭력성이 낮고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들 경우, 스트레스 대처기술과 양성평등의식

을 강조하고, 수동공격적 또는 자기애적인 성향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개입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법원의뢰 폭력남편에 대한 상담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가 있는지 염두에 두고 원인을 밝혀서 기존 행위자프로그램에 새로운 내용을 첨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남성들에 대한 편의표집 문제를 극복하고 상황이나 관계요인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재검증되어야 하며, 향후 인과관계 추론이 타당한 중단연구들이 나와서 이론적 가설들을 제대로 검토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김갑숙. 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병수. 1999.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아내학대의 인식과 경험”.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 1998. “한국가정폭력의 실태와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 4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pp. 1-37.
- 박경규. 1994. “기혼남성의 스트레스와 폭력과의 인과관계”.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희숙. 2003. “아내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사회복지학』 55: 255-281.
- 장희숙·김예성. 2004. “가정폭력 행위자의 유형”. 『한국사회복지학』 56(3): 303-325.
- 정숙영. 1997.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ell, N. 1991. “The Index of Clinical Stress : A Brief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for Practice and Research.”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27: 12-15.
- Barling, J. and A. Rosenbaum. 1986. “Work Stressors and Wife Abus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2): 346-348.
- Barnett, O. W. and P. S. Planeaux. 1989. “A Hostility-guilt Assessment of Counseled and Uncounseled Batters.” Paper presented at the *Responses to Family Violence Research Conference*, Purdue University.
- Barnett, O. W., T. E. Martinez, and B. W. Bleustein. 1995. “Jealousy and Anxious Romantic Attachment in Maritally Violent and Nonviolent Ma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0: 473-486.
- Beasley, R. and C. Stoltenberg. 1992.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Male Spouse Abusers.” *Prof. Psycho. Res. Practice* 23: 310-317
- Blood, R. O. and D. M. Wolfe. 1960. *Husbands and Wives*. Glencoe, IL: Free Press.
- Bograd, M. 1988.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An Introduction.” pp. 11-26 in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edited by M. Bograd and K. Yllo. Beverly Hills, CA: Sage.
- Bowlby, J. 1984. “Violence in the Family as a Disorder of the Attachment and Caregiving System.”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44: 9-27.
- _____.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riere, J. 1987. “Predicting self-reported likelihood of battering.” *Research in Personality* 21: 61-69.

- Coleman, D. H., and M. A. Straus. 1990. "Marital Power, Conflict, and Violence in an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merican Couples." pp. 182-202. in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edited by M. A. Straus and R. J. Gell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Crowne, D. P. and D. Marlowe. 1964. *The Approval Motive*. New York: Wiley.
- Cunradi, C. B., R. Caetano, and J. Schafer. 2002. "Socioeconomic Predic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White, Black, and Hispanic Coupl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7(4): 377-389.
- Dibble, U. G. and M. A. Straus. 1980. "Some Social Structure Determinants of Inconsistency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71-80.
- Dutton, D. G. 1995. *The Domestic Assaults of Women(2nd ed)*. Vancouver, Canad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 _____. 1998. *The Abusive Personality*. New York: Guilford.
- Dutton, D. G. and A. J. Starzomski. 1993. "Borderline Personality in Perpetrator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Abuse." *Violence and Victims* 8: 327-337.
- Dutton, D. G. and M. Bodnarchuk. 2005. "Through a Psychological Lens." pp. 5-18. in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edited by D. R. Loseke, R. J. Gelles, and M. M. Cavanaugh. CA: Sage
- Gelles, R. J. 1993a. "Through a Sociological Lens." pp. 31-46. in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edited by R. J. Gelles and D. R. Loseke. CA: Sage
- _____. 1993b. "Alcohol and Other Drugs are Associated with Violence." pp. 182-196. in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edited by R. J. Gelles and D. R. Loseke. CA: Sage
- Gondolf, E. W. 1985. *Men who Batter*. FL: Learning Publications.
- _____. 1999. "MCMI-III Results for Batterer Program Participants in Four Cities: Less "Pathological" Than Expected."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1): 1-17
- Greenwald, H. J., and Y. Satow. 1970. "A Short Social Desirabilit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27: 131-135.
- Hamberger, L. K., and J. E. Hastings. 1986. "Personality Correlates of Men Who Abuse Their Partners: A Cross-validation Study." *Violence and Victims* 1(4): 323-341.
- _____. 1991. "Personality Correlates of Men who Batter and Nonviolent Men: Some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6: 131-147.
- Hart, S., D. Dutton, and T. Newlove. 1993. "The Prevalence of Personality Disorders Among Wife Assault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7: 329-341.
- Hastings, J. E. and L. K. Hamberger. 1988.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Spouse Abusers: A Controlled Comparison." *Violence and Victims* 3(1): 31-48.
- Hiberman, E. and K. Munson. 1978. "Sixty Battered Women." *Victimology* 2: 460-470.
- Holtzworth-Munroe, A., and G. L. Stuart. 1994. "Typologies of Male Batterers: Three

- Subtypes and the Differences among Them."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76-497.
- Hotaling, G. T., and D. B. Sugarman. 1986.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1: 101-124.
- Kantor, G. K., and M. A. Straus. 1990. "The drunken bum theory of wife beating." pp. 203-224 in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edited by M. A. Straus and R. J. Gell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Katz, L. F., and J. M. Gottman. 1995. "Vagal Tone Protects Children from Marital Conflic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83-92
- Kishur, G. R. 1989. "The Male Battere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9: 2409A
- Leonard, K. E., and H. T. Blane. 1992. "Alcohol and Marital Aggression in a National Sample of Young 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7:19-30.
- MacEwen, K. E., and J. Barling. 1988. "Multiple Stressors, Violence in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Aggress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3(1): 73-88.
- Maiuro, R. D., T. S. Cahn, and P. P. Vitaliano, B. C. Wagner, and J. B. Zegree. 1988. "Anger, Hostility, and Depression in Domestically Violent versus Generally Assaultive Men and Nonviolent Control Subj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1): 17-23.
- Martin, G. L. 1986. *Counseling for Family Violence and Abuse, 4*. Resource for Christian Counseling Series.
- Millon, T. 1994. *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 Minneapolis: National Computer.
- Morrison, K. M. 1997. *A Survey of Massachusetts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Predicting Treatment Completion* Ph. D Dissertation, Antioch New England Graduate School.
- Murphy, C., S. L. Meyer, and K. D. O'Leary. 1993. "Family Origin Violence and MCMI-II Psychopathology Among Partner Assaultive Men." *Violence and Victims* 8: 165-176.
- Neidig, P. H., B. S. Collins, and D. H. Friedman. 1986.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Males Who Have Engaged in Spouse Abus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 223-233.
- Novaco, R. W. 1975. *Anger Control: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Experimental Treatment*. Lexington, MA: D. C. Health.
- O'Leary, K. D. 1993. "Through a Psychological Lens: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Disorders, and Levels of Violence." pp. 7-30 in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edited by R. J. Gelles and D. R. Loseke. Newbury Park, CA: Sage.
- Osmond, M. W. and P. Y. Martin. 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Pokorny, A. D., B. A. Miller, and H. B. Kaplan. 1972. "The Brief MAST: A Shortened

- Version of the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9(3): 342-345.
- Quigley, B. M. and K. E. Leonard. 1996. "Resistance of Husband Aggression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Violence and Victims* 11: 355-370.
- Rosenbaum, A. 1986. "Of Men, Macho, and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2): 121-130.
- Rosenbaum, A. and K. D. O'Leary. 1981. "Marital Violence: Characteristics of Abusive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1): 663-671.
- Saunders, D. G. 1984. "Helping Husbands Who Batter." *Social Casework* 65(6): 347-353.
- _____. 1991. "Procedures for Removing Social Desirability Bias from Self-Reports of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3): 337-345.
- _____. 1992. "A Typology of Men Who Batter Women: Three Types Derived from Cluster Analysis."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 264-275.
- Saunders, D. G., A. B. Lynch, M. Grayson, and D. Linz. 1987. "The Inventory of Beliefs about Wife Beating: The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of Beliefs and Attitudes." *Violence and Victims* 2(1): 39-57.
- Selzer, M. L. 1971. "The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The Quest for a New Diagnostic Instru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7: 1653-1658.
- Smith, M. D. 1990. "Patriarchal ideology and Wife Beating." *Violence and Victims* 5: 257-273.
- Steinmetz, S. K., and M. A. Straus. 1974. *Violence in the Family*. New York: Harper and Row.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ruary: 75-88.
- _____. 1980. "Social Stress and Marital Violence in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Families." in *Forensic Psychology and Psychiatry*, edited by F. Wright, C. Bahn, and R. Reiber. New York: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 _____. 1983. "Ordinary Violence, Child Abuse, and Wife Beating." pp. 213-234 in *The Dark Side of Families*, edited by D. Finkelhor, R. J. Gelles, G. T. Hotaling, and M. A. Straus. CA: Sage.
- _____. 1990. "Social Stress and Marital Violence in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Families." pp. 181-202 in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edited by M. A. Straus and R. J. Gell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Straus, M. A., and R. J. Gelles. 1990. "How Violent are American Families? Estimates from the National Family Violence Resurvey and Other Studies." pp. 95-112. in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edited by M. A. Straus and R. J. Gell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Straus, M. A., S. L. Hamby, S. B. McCoy, and D. B. Sugarman.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Tolman, R. M., and L. W. Bennett. 1990. "A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on Men Who Batt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87-118.
- van der Kolk, B. A. 1988. "Trauma in Men: Effects on Family Life." pp. 170-185. in *Abuse and Victimization Across the Life Span*, edited by M. B. Strau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Walker, L. E. 1984. *The Battered Woman Syndrome*. New York: Springer.
- White, G. L. 1977. "The Social Psychology of Romantic Jealous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10): 5449-B.
- Yegidis, B. L. 1992. "Family Violence."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8: 519-529.
- Yllo, K. A. 1993. "Through a Feminist Lens." pp. 47-62. in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edited by R. J. Gelles and D. R. Loseke. CA: Sage.

A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Maritally Violent Men in a Community Sample and Batterer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hang, Hee-Suk
(Sungkonghoe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plored and compared the risk factors of two subtypes of maritally violent men with those of a nonviolent comparison group. One type of batterers consisted of a community sample, and the other was sought from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identities of the male community batterers were not exposed to the society since their victims did not contact any of the social service agent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To identify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wo subtypes of woman abusers, a total of 152 nonviolent men, 82 male community batterers, and 336 offenders in a criminal justice system were considered. The results of the descriptive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 of physical violence of the community batterers was two times lower than that of the batterers who received legal punishments. The results of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ere as follows: (1) The variables that distinguished the male community batterers from the nonviolent men were the use of physical violence towards children, marital decision power, and income. (2) Four factors had been found to distinguish batterer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rom nonbatterers, namely: attitudes towards woman battering, education, violence towards children, and level of jealousy. (3) The community batterers showed a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of stress as well as a longer period of marital relationship compared to the batterer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batterers who received legal punishments had more severe alcohol problems and had an accepting attitude towards the use of violence.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psychopathology among batterers using MCMI-III, based on 333 subjects. In terms of the mean scores, there were no subscales associated with personality pathology in all the male groups. Based on the logit model, the community batterers showed a stronger tendency towards having a passive-aggressive personality than did their counterparts, and they recorded a

higher level of narcissism compared to the court-referred battering men. Post-traumatic stress was the only symptom that distinguished the batterers who received legal punishments from the other group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pointed out and discussed in the paper.

Key words: wife assault, domestic violence, batterers, characteristics and typology of men who batter,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논문접수일 2006. 6. 27. 게재확정일 2006. 9. 23.]